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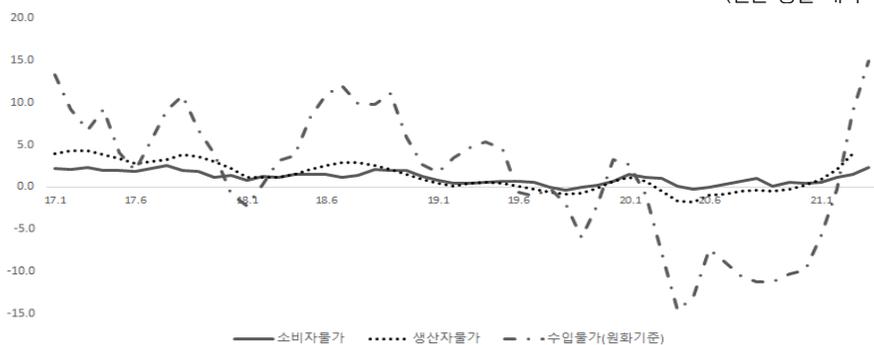
2021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를 상회하면서 물가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요 물가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볼 때, 첫째, 물가 상승세가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둘째, 집세나 공공 부문의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누적되어 상당 기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물가 불안은 실질구매력뿐 아니라 금리상승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020년 연평균 0.5%에 불과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2%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그림 1) 참조)

- 2021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3%로 나타나 2017년 9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품목성질별¹⁾로는 농축수산물 13.1%, 공업제품 2.3%, 전기·수도·가스 -4.9%, 집세 1.2%, 공공서비스 -1.0%, 개인서비스 2.2%로 나타나 물가 불안이 농축수산물에 의한 일시적 현상²⁾이라는 견해도 있음
- 반면, 생산자물가(3월: 3.9%)와 수입물가(4월: 15.0%) 상승률도 각각 2017년 4월과 2011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물가 불안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장기화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음

〈그림 1〉 주요 물가지표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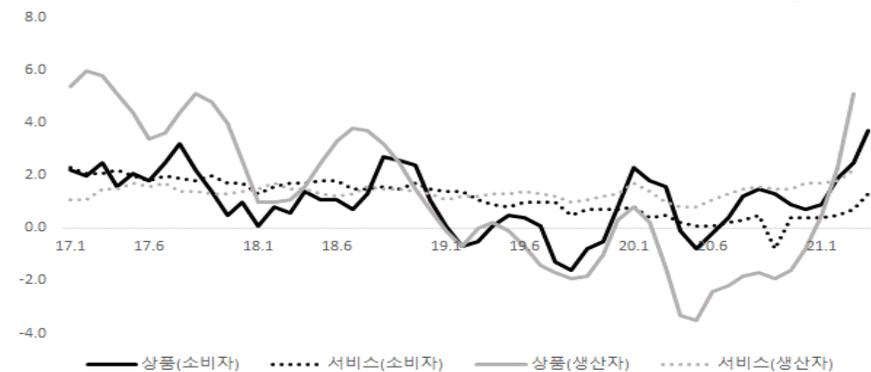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1)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는 상품 항목에 포함되며,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는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2) 농축수산물 항목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작황 등에 따른 불안정성이 커서 전체 소비자물가의 일시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음

- 본고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요 물가 지표에서 나타난 특징을 기초로 논의하고자 함
 - 본고는 물가 문제를 통화량, 상품 수급 등 다양한 변수들과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생산자, 수입 물가 등 총지수와 상품 및 서비스 등 유형별 지수에서 나타난 특징을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함
- 첫째, 최근 물가 상승세는 외형적으로 농축수산물이나 공산품 등 상품 부문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나,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세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그림 2〉 참조)
 - 최근 물가 상승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입, 생산자, 소비자물가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 항목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비자물가 서비스 항목(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의 상승률은 2019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1.0% 이하 수준을 유지하였고, 2020년에는 연평균 0.3%로 나타났으나 2021년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3%를 기록하였음
 - 생산자물가 서비스 항목³⁾의 경우 2021년 3월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하여 2012년 1월 2.3%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서비스 부문의 물가는 수수료나 인건비 등 구조적으로 하방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세가 시작되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그림 2〉 상품 및 서비스 물가 상승률(소비자, 생산자) (전년 동월 대비 %)



자료: 통계청

- 둘째, 집세와 공공요금 등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요인이 잠재되어 상당 기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그림 3〉 참조)
 - 소비자물가 집세 상승률은 2021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1.2%로 나타났으나, 집세 시세를 반영하는 전세가격지수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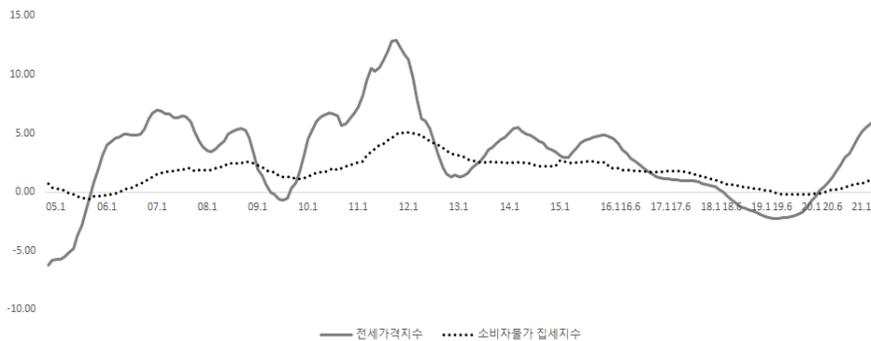
3) 생산자물가의 서비스 부분은 운송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등 생산자가 활용하는 서비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4) 소비자물가 집세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월세통합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계열이 충분하지 않아 본고는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 는 같은 시점에 이미 전년 동월 대비 6.1%에 이르러, 장기간 집세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집세 물가의 경우 전월세 시세가 변화하여도 실제 계약으로 현실화되어야 물가지수 상승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시세 변화가 상당 기간 이연되어 반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2021년 4월 소비자물가를 품목성질별로 볼 때 '전기·수도·가스'(-4.9%)와 '공공서비스'(-1.0%) 부문만 하락세를 기록함
 - 이들 항목은 모두 인위적인 통제가 가능한 부문이기 때문에 다른 부문에서 파생된 물가 압력이 누적될 경우 향후 요금 현실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3〉 전세가격지수와 소비자물가의 집세지수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



자료: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 물가 불안 여부는 실질 구매력의 변화뿐 아니라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만큼, 최근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세의 장기화 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주요 물가 지표의 추이를 볼 때 물가 상승세가 서비스 부문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집세나 공공요금 등에서 물가 압력이 누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미국의 경우 물가 불안을 우려하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물가 불안과 관련된 국제 상황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할 것임
 - 보험산업의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세가 자산 운용 여건을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줄 것이나, 가계 부채 부담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내수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전세가격지수와 소비자물가 집세 부문의 상승률을 비교하였음. 전월세통합지수의 2021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4.5%로 나타났음